

A Design Guideline of Action Learning-Based Religious Education: Focusing on Wonkwang University's Liberal Arts

Juyoun Le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 design guideline of Action learning-based religious education. As a poetic study for teaching-learning design that can interact with learners in the era of de-religionization, it proposes a way for 'Religion and *Won Buddhism*', an essential liberal arts course at Wonkwang University, to achieve educational effects such as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while conforming to the doctrinal basis and educational ideology of *Won Buddhism*.

[Contents] This study explores the fundamental ideologies that should be referenced for the design of teaching-learning and establishing the tasks of religious education of *Won Buddhism*, focusing on 'Il-Won (一圓)', 'Fourfold Grace (四恩)', and 'Four Essentials(四要)' in this study. And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operation of Action learning-based 'Religion and *Won Buddhism*' is explored.

[Conclusions] Through action learning-based religious education, this study discussed the learner's subjectivity as a 'Il-Won', the network of 'Grace' between educational members, and the role establishment of instructors and learners based on the 'The Wise Mas First'. In particular, practical methods such as small group activities using Action learning were explored, and an educational direction was suggested to pursue religious knowledge through the daily life of learners.

[Keywords] Era of de-Religionization, *Won Buddhism*, Learner-centered class, Action Learning, Small Group activity

* Corresponding to Juyoun Lee (Researcher, The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in Wonkwang Univ.)

E-mail : wndus@wk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액션러닝 기반 종교교육의 설계 방향: 원광대학교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이주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원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액션러닝 기반 종교교육의 설계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탈종교 시대의 학습자와 호흡할 수 있는 교수-학습 설계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원광대학교 교양필수 과목인 ‘종교와 원불교’가 원불교의 교의적 근거 및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 등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 종교교육이 가지는 과제를 정립하고 교수-학습의 설계를 위해 참조해야 하는 기반 이념을 원불교 핵심 교의인 ‘일원(一圓)’과 ‘사은(四恩)’, 그리고 ‘사요(四要)’를 중심으로 탐색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액션러닝 기반의 ‘종교와 원불교’ 설계 방향을 모색한다.

[결론] 본 연구는 액션러닝 기반의 종교교육을 통해 ‘일원’으로서의 학습자 주체성 및 교육구성원 간 ‘은혜’의 연결망, ‘지자본위’ 정신에 입각한 교수자·학습자의 역할정립 등을 논의한다. 특히 액션러닝을 활용한 소집단 활동 등 실질적 방법론을 탐구하여 학습자의 일상 삶을 통해 종교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제안한다.

[주제어] 탈종교시대, 원불교, 종교교육, 학습자 중심, 액션러닝, 소집단 활동

I. 머리말

이 연구는 액션러닝 기반의 종교교육을 위한 설계 방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2022 종교인식조사’는 우리나라 국민 중 51%가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지금 같은 인공지능, 생명공학, 지구온난화, 사이버 전쟁의 시대에 종교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가(Harari, 2018: 196)에 관한 회의감은, 지구공동체의 새로운 문제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세우는 일이 종교적 신앙 행위보다 더 급선무임을 전제로 두는 실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 이래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탈종교 현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세대는 20대다. 이들의 종교이탈은 심화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거나 개인적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지금의 경향은 종교생활보다 운동, 캠핑, MBTI, 영상기록 같은 취미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학습자에게 종교를 교육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그러나 종립대학의 종교를 교육할 자유, 그리고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더욱 상충한다.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의 대체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종립대학의 종교교육이 아무리 해당 대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필수 교육이라 하여도, 학생이 해당 대학에 입학한 사실을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종교교육을 해당 종교에 관한 학문적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 예배나 법회 같은 종교 행위로 정의하는 것 또한 요즘 같은 탈종교 시대의 종교교육을 오판하는 일이 된다.

그렇다면 종교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종교적 관심이 적은 탈종교 시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종교교육의 정체성에 충실한 종교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김희성은 말했다: “나는 성경이나 불경 같은 경전에 대한 지식의 주입이나 예배나 기도 같은 ‘종교적’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도 ‘그리스도교 정신’이나 ‘불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사실 이것이 진정한 종교교육이라고 생각한다(Keel, 2021: 122).”

본 연구는 김희성의 견해를 참조하여, 종교 중심의 지식 주입 또는 종교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종교교육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원불교의 종립대학 원광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 ‘종교와 원불교’는 2016년까지만 해도 다종교 신앙 배경을 지닌 학생들과 호흡하는 교과목으로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변모를 요구받았었다(Kim, 2016: 84).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은 탈종교 시대의 학습자와 호흡하기 위한 또 다른 변모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불교의 종교교육이 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려면 어떤 이념을 기반에 두어야 하고, 어떠한 방향 아래 교수-학습을 설계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학습자 중심 기법인 액션러닝 기반의 ‘종교와 원불교’ 교수-학습에 관한 시론적 모색이다.

II. 원불교 종교교육의 과제와 기반

1. 교육적 과제

『원불교 헌규집』에서는 원불교의 ‘교육이념’을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바탕하여 인류를 두루 교육함으로써 시대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제생의세의 사명을 실현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 collection of constitution & regulations of WON-BUDDHISM, n.d.). 이 규정에 근거하면, 원불교의 종교교육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학습자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인다. 탈종교시대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의미를 지금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교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진리적 종교’는 ‘종교적 진리’와 다르다. 종교적 천재가 한 집단을 구성하여 특유한 감화나 위력을 가질 때 그 가르침을 ‘종교적 진리’라 한다면, ‘진리적 종교’는 대중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교화하려는 순수한 종교활동을 말한다(Ryu, 1977: 90). 소태산이 대각을 이룬 후 ‘추상할 수 없는 말과 태도’(Wonbulgyo Jeonghwasa, 1977: 1043)로 인근에서 믿고 따르는 사람을 40여명까지 모았던 것은 ‘종교적 진리’를 일시적으로 실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소태산은 불법연구회를 창립하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할 것을 강조했다. 당시 일제강점기의 어지러움을 틈타 백백교를 비롯한 일부 신흥종교들이 특정 인물을 향한 믿음을 중심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점을 생각하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통한 교화는 혼란한 사회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소태산은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Wonbulgyo Jeonghwasa, 1977: 113)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당부의 배경에는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경외심을 바탕으로 존귀한 부처를 대하려는 마음으로 천만 대상에 응해야 한다고 보는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의 교의가 존재한다. 1935년 소태산은 『조선불교 혁신론』을 저술하면서 등상불을 숭배하던 기존의 불교 신앙을 일상 삶 속에서의 일원상(一圓相) 신앙으로 개혁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특정의 등상불만이 아닌 삶 속에서 만나는 천만 대상을 부처로서 신앙하자는 입장으로, 이는 ‘원만한 신앙’을 의미한다.

또한 ‘사실적 신앙’은 미신적 신앙의 반대적 의미를 가진다. 소태산은 제자 민자연화가 소태산이 남긴 밥을 매번 먹음에 그 이유를 물으니 합리적인 이유를 당사자도 잘 알지 못함에,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 미신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한 적이 있다. 이 점에서 미신적 신앙이 아닌 사실적 신앙은 원리와 이치-부처가 남긴 음식을 먹으면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닌, 가까이 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나의 생활양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이해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같은 탈종교 시대의 원만한 신앙, 사실적 신앙은 어떤 것일까? 원불교인이 아닌 이웃종교인, 또는 종교에 관심 없는 일반인, 종교에 비판적인 사람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 신앙체계라 할 수 있다. 류병덕은 탈종교 현상의 원인으로 “종교의 탈을 쓴 종교인들의 이기심(또는 집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벗어나지 못한”(Ryu, 1992: 469) 것을 지목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인류가 지닌 선택의 자유, 즉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을 자유,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원불교가 이런 요인을 지양하고 보다 발전적인 종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요청된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일상 삶이 곧 훈련이 됨으로써 수양과 마음공부, 교리에 대한 이해 등 원불교가 추구하는 ‘진급’을 위한 공부들이 삶을 통해 실천되도록 한다. ‘사실적’이란 말은 이념이나 관념에 머무르는 도덕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도덕의 훈련이란 도를 닦고 덕을 쌓는 반복적인 수행과정을 말한다(Park, 2004: 101).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영육쌍전’이나 ‘무시선 무처선’ 등의 교의를 통해 실천되는데, 이 지향점을 탈종교 현상에 적용해 보면 종교적 신앙과 수행을 위해 개인의 일상 일부를 투입하는 방식보다, 개인의 일상 속으로 신앙과 수행이 용해되는 방법이 필요하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부합하는 종교교육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 정서를 가진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교육의 내용을 이해 및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원불교 종교교육의 이러한 과제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종교와 원불교’ 교재인 『종교와 원불교』의 경우,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호감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뿐 아니라 지식전달에 치중한 강의식 수업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Ko, 2020: 164)은 곧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삶과 분리되지 않는 교육을 행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종교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에게까지도 의미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Kim, 2016: 83), 대중을 유익하게 하는 공익적 종교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에서의 주장(Hwang, 2017: 173)은 원불교의 종교교육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참 의미에 부합하는 종교교육으로서 그 본질적 목적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교수-학습 설계의 기반 이념

원불교의 궁극적 진리는 ‘일원(一圓)’으로 설명된다. 일원의 상징인 법신불 일원상(法身佛 一圓相)은 전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태산 박중빈(少太山 朴重彬, 1891-1943; 이하 ‘소태산’)은 깨달음을 얻은 후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道)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Wonbulgyo Jeonghwasa, 1977: 95).”라고 설교했다. 이때의 ‘한 두렷한 기틀’이 일원상이다.

소태산은 일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보았다.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으로 정의될 만큼 일원은 원불교 교의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당시 ‘등상불 숭배’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던 민중을 대상으로 올바른 신앙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일원상의 진리를 정립한 것이다. 일원상이 궁극적 진리를 의미하기는 하나, 혹자는 참 달이 아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 같이 궁극적 진리를 일원상 자체라고 오판할 수 있다. 일원상은 절대적 진리를 형상으로 그려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형상만으로 형이상학적 개념을 전부 인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소태산은 “저 원상은 참 일원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다(Wonbulgyo Jeonghwasa, 1977: 114).”라고도 하여, ‘참 일원’의 실상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소태산은 ‘손가락은 달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 일원상을 궁극적 교의로 제정하는 것에서 교법의 체계화 작업을 끝내지 않았다. 그는 일원상의 현실적 내역으로서 ‘사은(四恩)’도 제시했다.¹⁾ 일원상과 사은, 그리고 우주만유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Wonbulgyo Jeonghwasa, 1977: 113).”²⁾

이렇게 ‘내역’으로서의 관계를 설정한 것에는 일원을 현실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대상인 사은을 구체화함으로써 바른 신앙을 추구하려는 취지가 존재한다. 일원상·사은·우주만유의 개념을 모두 다룬 이유는 여기에 있다. 어린아이에게 기린이 어떤 동물인지, 개념적으로만 이해시키는 것보다 실제 기린을 보고 만져보도록 하는 게 가장 쉬운 법이다(Lee, 2023: 90).³⁾

소태산은 우주만유에 펼쳐진 ‘은혜’의 의미를 가리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Wonbulgyo Jeonghwasa, 1977: 27)라고 설명했다. 우주만유가 서로 없이 살 수 없는 은혜로 얹혀 있다는 입장이다. 모두가 얹혀 있는데, 그는 그저 얹혀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써 얹혀 있다. 일원상의 진리를 가시적 현상을 통해 드러낸다고 할 때, 여기에 은혜라는 속성이 존재한다. 1932년 발간한

- 1) 사은은 천지은(天地恩)·부모은(父母恩)·동포은(同胞恩)·법륜은(法律恩)의 네 가지 은혜를 말한다. 우리가 몸을 의지하고 생(生)을 살도록 하는 근원적 토대로서 천지,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삶의 영위에 도움을 주는 동포, 질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안전할 수 없으므로 보편적 삶이 가능하도록 장치된 법륜을 말한다.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다 하더라도, 도형으로 만들어진 일원상을 통해 우주만물의 궁극적 진리를 바로 체득하여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네 영역으로 은혜를 설명함으로써 직접 궁극적 진리를 삶 속에서 발견하도록 하였다.
- 2) 우주만유는 사은을 상위개념으로, 사은은 일원상을 상위개념으로 둔다. 그러므로 사은과 우주만유는 각 상위개념의 ‘내역’에 해당한다. 물론 A가 B의 내역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등가적인 것은 아니듯, 이 세 가지는 서로 등가적이지는 않지만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 3) 그렇다고 해서 실제 기린이 개념 ‘기린’을 온전히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어디까지나 실제 기린은 개념 ‘기린’의 일부다. 그래도 기린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며 기린의 존재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보경육대요령(寶經六大要領)』을 비롯해 모든 교서들에는 이 은혜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그만큼 소태산이 은혜의 관계에 주목하였음을 의미한다.

‘은혜’의 교의, 즉 ‘사은’은 개체생명간의 존재구도를 피은과 보은이라는 틀을 빌어 표현하고 있다(Jeong, 2016: 69-70). 모든 생명은 은혜로 연결되는데, 은혜를 주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의 이원적 구도를 형성하진 않는다. 그러니 누구나 은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수많은 개체와 개체 사이에 무량한 다양성의 관계가 서로를 규정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어울려 존재”(Jeong, 2016: 68)하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설명이 적합하다.

그런다면 일원과 은혜의 교의에 입각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주체와 객체의 이원적 구분이 전제되지 않는 무한한 얽힘의 관계를 주목한다면, 의상계 화엄의 불교철학에서 밝히고 있는 ‘일체 제법의 총상(總相)인 내가 필요에 따라서 연에 응하여 교수자가 되고 학습자가 되기도 하며 교수자인 학습자, 학습자인 교수자가 되기도’(Park, 2017: 46)하는 원리와 부분적인 공통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소태산의 정의는 일원이라는 절대적 진리의 연결망에서 소외된 존재가 단 하나도 없음을 내포한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본래 ‘일원’의 궁극적 진리 그 자체이며, 서로 은혜의 관계 속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교수자와 교수자 간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관계맺음 위에서 한 가지를 더 고민하게 된다. 바로 ‘일원’으로서 본래 부족함 없고 완전무결한 진리적 존재, ‘은혜’의 긴밀한 연결망을 형성한 존재들을 대상으로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의 문제다. 은혜의 관계맺음은 앞서 예를 든 불교철학의 원리와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 구분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두진 않는다. 그러나 원불교 교의구조를 고려하면 다음의 두 측면에서 역할 구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은혜의 관계가 각각의 역할에 따른 피은과 보은으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정전』에서는 ‘사은(四恩)’을 ‘피은(被恩)’, ‘보은(報恩)’, ‘배은(背恩)’의 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가령 『정전』 ‘동포 피은의 조목’에서는 사농공상으로부터의 피은된 내역⁴⁾을 각각 제시하는데, 특히 “사(士)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줌”이라 하여, 교육을 실천하는 자의 은혜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보은하기 위해서는 “천만 학술로 교화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타로써”(Wonbulgyo Jeonghwasa, 1977: 34-35)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사농공상의 역할 구분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가운데 자신의 이익과 타자의 이익을 함께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4) “사(士)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줍시오, 농(農)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료를 제공하여 줍시오, 공(工)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줍시오, 상(商)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도와 줍시오,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Wonbulgyo Jeonghwasa, 1977: 35).”

만약 ‘일원’의 교의만 제정되고 네 가지 은혜, 즉 ‘사은’이라는 교의는 제정되지 않았다면 교육의 두 주체, 즉 교수자와 학습자 간 관계를 설정할 충분한 교의적 근거를 제시하긴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나타난 ‘사(士)’로서의 ‘동포’는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고 있고, 이 자체는 베푸는 자와 베풀을 받는 자가 구분되는 은혜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은 엄연히 구분된다. 모든 존재가 완전한 ‘일원’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은혜를 주고받지만, 현실적 측면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로서의 서로 다른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어야 참된 자리이타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둘째, 이 점은 사은과 밀접한 교의인 ‘사요(四要)’⁵⁾에서도 강조된다. 사요의 교의 중 두 번째 조목인 지자본위, 그리고 세 번째 조목인 타자녀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정립할 근거로 참조된다. 소태산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지자 본위의 조목>

1. 술성(率性)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2.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3.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4. 학문과 기술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5.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니라.

이상의 모든 조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때에 있어서 하자는 것이니라(Wonbulgyo Jeonghwasa, 1977: 42).

나보다 우수한 역량을 가졌다면, 지위의 높고 낮음,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련 없이 스승으로 삼는다. 단 “구하는 때에 있어서”, 즉 스승과 제자의 역할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상황 맥락에 적정히 적용되어야 한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정리하건대, 우주 만유는 일원을 본원으로 하며 은혜의 얹힘 속에 어울려 살아간다. 그래서 누구나 교수자도 될 수 있고 학습자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 만유가 곧 일원으로서의 완전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 관해 나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갖춘 자가 스승(교수자)이 되어야 하며, 여건이 되는 존재는 타자녀를 두루 교육해야 한다는 전제⁶⁾가 사요의 교의에 존재한다.

5) 소태산의 사요 선포는 후천개벽의 종교로서 사회의 개혁과 구원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떨칠 수 없었다는 배경을 가진다(Ryu, 2011: 28). 그래서 민중이 직접 생활을 개혁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요긴한 방법 즉 ‘자력양성(自力養成)’, ‘지자본위(智者本位)’, ‘타자녀교육(他子女教育)’, ‘공도자승배(公道者崇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평등의 세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6) <타자녀 교육의 조목>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을 실천한다면,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교육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일원’이라는 본질적 주체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이미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교수자는 “술성(率性)의 도와 인사의 덕행”, “학문과 기술”(Wonbulgyo Jeonghwasa, 1977: 42) 등이 학습자의 ‘이상’이 됨으로써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보다 ‘이상’이 되는 존재를 ‘스승’으로 인식하고 겸허히 배움을 얻는다.

III. ‘종교와 원불교’의 설계 방향

1. 학습자 중심의 ‘종교와 원불교’

‘종교와 원불교’는 원광대학교 건학정신인 ‘지덕겸수 도의실천’을 실현하기 위해 개설된 교양 필수 과목이다. 현재 ‘원불교교육규정’에서는 ‘종교교육의 내용’에 관해 종교일반의 이해, 원불교 교리 및 교사를 중점적으로 포함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A collection of constitute in & regulations of WON-BUDDHISM, n.d.).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교재 『종교와 원불교』는 ‘제1편. 인간과 종교’, ‘제2편. 한국 종교의 이해’, ‘제3편. 원불교 역사와 사상’, ‘제4편. 현대사회와 원불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제2편은 무교·불교·유교·도교·기독교·이슬람교·한국의 신종교 등 여러 종교들을 다룬다.

탈종교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종교교육은 당초의 목적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세속화의 길을 택할 것인가(Kim, 2001: 223)의 갈등을 문제로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와 원불교’도 새로운 변모를 요청받고 있다. 물론 이 교과목은 원불교만이 아닌 다양한 종교들을 교육함으로써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종교와 원불교’ 수업은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데다, 교양필수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수강해야 한다는 점 등, 학습의 동기와 흥미를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와 원불교’는 원불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를 교육한다는 당초의 목적⁷⁾을 유

1.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 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낳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요,
2.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 기관을 널리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요,
3. 교단(敎團)에서나 사회·국가·세계에서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을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니라(Wonbulgyo Jeonghwasa, 1977: 44).
- 7) 류병덕은 원불교의 ‘삼동윤리’를 근간으로 하는 ‘삼동윤리해석학’이 탈종교현상의 극복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삼동윤리해석학은 모든 종교의 진리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모든 종교의 신앙체험

지하는 동시에, 종교에 관한 관심도가 낮은 탈종교시대의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종교와 원불교’는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대부분의 원광대학교 재학생은 입학 첫해에 이 과목을 수강하는 까닭에 각 학과 단위로 대규모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다수의 학생이 대형 강의실에서 함께 강의식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강의식 수업에선 학습자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방향적 소통으로만 이루어지는 수업인 만큼 학습자의 이해의 정도를 교수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학습자는 교수자의 강의를 청취하는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에서, 긴 시간 동안 수동적 자세를 견지하기 쉽다.

반면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협동학습으로서 소집단 활동을 진행할 경우 학습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공통의 결과물을 협력하여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제시하는 절차가 생성될 수 있다. 종교에 관한 관심도가 낮은 학습자들에게는 강의식 수업보다 이와 같은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일원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은혜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내향적 성격을 가진 학습자는 소집단활동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일부 교과목에서는 소집단 단위로 발표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 불공평한 업무 분담, 불성실한 조원으로 인한 불쾌감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소집단활동을 통해 어떻게 서로의 일원으로서의 주체성을 인식하여 은혜의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은혜의 연결망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Wonbulgyo Jeonghwasa, 1977: 34)를 체험하고 구현함으로써 서로 “보은”을 할 수 있는 소집단이다. 소집단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변수에 대처하려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라포(rapport)의 형성이고, 또 하나는 팀 내 기여도를 반영한 혼합 평가다. 라포를 형성하는 것은 내향적 학습자로 하여금 부담 없이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양한 성향의 학습자는 함께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직접 서로의 팀 내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써 ‘무임승차’의 폐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팀 내 활동을 충분히 관찰 및 조율해야 한다.

2. 액션러닝 기반의 ‘종교와 원불교’

본고에서는 학습자를 서로 은혜의 관계로 연결된, 일원으로서의 주체로 설정한다. 그리고 학

을 통해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하고, 각 종교 간의 대화, 무종교인과의 대화 등을 바탕으로 종교간의 회통을 추구한다(Ryu, 1992: 471).

문과 교육의 역량을 갖춘 교수자는 ‘지자분위’의 정신에 따라서 학습자를 안내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원불교의 종교교육은 (1) ‘일원’으로서의 주체성 및 ‘은혜’의 업힘을 구현하는 교육, 그리고 (2) 주어진 역할-학습자와 교수자-에 따라 첨부되는 정체성을 발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설계의 방향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중심의 설계 방향

학습자 중심의 종교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요구된다. 이 점에서 ‘액션러닝(Action Learning)’ 기반의 교수-학습은 종교, 그리고 학습자의 일상 삶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액션러닝은 “소규모로 구성된 한 집단이 조직, 그룹 또는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이슈와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그 실천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한 학습, 즉 현장적용과 성찰을 통한 학습의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이다(Bong & Yu, 2001: 59). 액션러닝은 기업을 비롯한 경영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어 왔지만 학습자 중심의 교육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가상의 문제를 배제한 실제 문제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액션러닝은 다른 교수법과 차이를 지닌다.

종교교육에서 액션러닝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안고 있는 문제를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종교적 교훈과 지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할 수 있다.⁸⁾ 따라서 ‘종교와 원불교’의 교수-학습은 종교에 관한 지식이나 이론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학습자가 협동학습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교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그런데 대학에서 액션러닝 기법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학습자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공지식의 이해와 습득도 달성해야 한다. 이에 김미옥과 봉현철은 액션러닝 기반의 대학교 수업에 필요한 과제선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 가능성, 둘째 개인과 팀의 역량 개발을 위한 기여 가능성, 셋째 실무와 현장의 관련성, 넷째 난이도의 적정성, 다섯째 평가의 용이성이 그것이다(Kim & Bong, 2016: 1188).

이 기준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이 과제 선정 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종교와 원불교’가 추구하는 학습목표는 원광대학교 건학정신인 ‘지덕겸수 도의실천’, ‘종교일반 및 원불교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불교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함께 다루는 한편, 배움을 통한 가시적 ‘앎’ 외에도 비가시적인 ‘덕’을 닦고 ‘도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 종교

8) 기독교교육에도 이 액션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 참조: Ham, Y. J. (2016). Understanding of action learning and its possibility as an effective Christian teaching method. *Theology and Praxis*, 48, 415-441.

교리를 생활 속에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제시한다. 둘째, 이 과정을 팀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교수자는 학습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넷째, ‘종교와 원불교’의 수강생이 대학교 1학년임을 고려하여 적정 난이도에 부합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다섯째, 과제를 수행한 학습자의 포트폴리오를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아래는 2023년 2학기에 제시된 ‘종교와 원불교’ 소집단 활동 절차다.

<표 1> ‘종교와 원불교’ 소집단 활동 절차(원광대학교 원불교학교재연구회, 2023: 7-14)

<Table 1> Group Activities Procedure in ‘Religion and Won-Buddhism’

주제	내용 및 절차	
	개요	세부
만족도 10% UP!	· 나의 지금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내 마음에 드는 나 자신의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 오늘의 주인공 선정	가위-마위-보를 하여 오늘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 내용 확인을 위한 Q&A	팀원들은 주인공에게 질문을 하여 내용 확인을 합니다.
	· 과제 (재)정의	주인공이 아닌 팀원들이 주인공의 과제를 정의합니다. “내가 볼 때 ()의 진짜 문제는 ()인 것 같다.”
	· 공감	과연 주인공만 그럴까요? “나도 그런 적 있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 해결방안 탐색	10% UP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팀원들과 함께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를 () 할 수 있을까?”
	· 소득 나누기	머리로 배운 것, 가슴으로 느낀 점, 손발로 실천할 사항
	· 교수님,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을 포스트잇에 적어 교수님께 전합니다.

위 절차를 순차적으로 해석한다면 ‘도입’ 순서는 ‘나의 지금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전개’ 순서는 ‘오늘의 주인공 선정’부터 ‘해결방안 탐색’, ‘정리’ 순서는 ‘소득 나누기’와 ‘교수님, 궁금합니다!’가 된다. 이러한 진행방식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 학습자 간의 라포를 형성하고, 습관이나 성격 등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동기를 고취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주차 수업의 주인공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팀원들이 함께 정의하고,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은 은혜의 연결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인공이 된 학습자는 자신의 실질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궁극적 존재인 ‘일원’의 주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이 수업은 종교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만큼, 학습자의 문제해결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앞서 제시한 과제 선정의 기준, 특히 ‘종교일반 및 원불교에 관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종교와 원불교’ 본연의 수업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과제 실천 방법에 종교적 실천 방법론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표 1>의 수업 내용 중 ‘해결방안 탐색’의 세부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보완할 수 있다.

<표 2> ‘해결방안 탐색’ 절차의 보완
<Table 2> Complementation of ‘Exploring Solution’

해결방안 탐색(1) - 실천방법 선정	10% UP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팀원들과 함께 찾습니다. : 어떻게 하면 ()를 () 할 수 있을까?”
↓	
해결방안 탐색(2) - 실천방법 구체화	탐색한 해결방안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 방법을 확립합니다. - 언제 실천할 것인가? -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대순진리회: 인존(人尊)의 실천⁹⁾으로 ()을 ()한다. - 불교: 팔정도 수행¹⁰⁾으로 ()을 ()한다. - 유교: 신(神)의 공경¹¹⁾으로 ()을 ()한다. - 원불교: 유무념 마음공부¹²⁾로 ()을 ()한다. - 기타: ()으로 ()을 ()한다. ※ 예시 · ‘인존(人尊)의 실천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한다.’ · ‘팔정도 중 ’정어(正語)의 실천으로 긍정적인 언어습관을 기른다’ · ‘신(神)의 공경법으로 부모님께 효도한다.’ · ‘유무념 마음공부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 팀원들 간 실천경과 공유 방법 - 사용 가능한 매체 선택 - 공유 일정 선정

9) ‘인존’은 대순사상이 표방하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종교적 인성교육을 통해 내재한 본래 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접근과 무관하지 않다(Na & Youn, 2015: 80-81).

10) 김준희는 불교 영성교육의 체계를 ‘팔정도’로 분석하며, 팔정도가 영성교육을 위한 최상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Kim, 2023: 56-59).

즉 ‘해결방안 탐색’의 절차를 <표 2>에서와 같이 ‘실천방법 선정’과 ‘실천방법 구체화’의 두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실천방법 선정’에 이어, ‘실천방법 구체화’ 단계에서 학습자는 원불교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종교 교리 중 적합한 교리를 탐구하고 이를 자신의 문제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된다. <표 1>에서의 ‘해결방안 탐색’은 종교적 기반 없이 학습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었다면, <표 2>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종교적 실천법들을 학습하여 직접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교수자의 역할 설계 방향

액션러닝 기법을 활용한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중심에 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지식을 갖춘 학습자를 양성할 것인가에 관한 목적보다 지식 획득의 양과 속도는 다소 덜할지언정 스스로 주도성을 갖추는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점에서, ‘종교와 원불교’의 운영에 있어서도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습자가 성취하게 되는 지식의 양, 학습의 속도는 덜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교수자의 역할은 정보제공자에서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촉진자(facilitator), 혹은 학습 환경의 조성자로 변화되어야 한다(Blumberg, 2012: 19). 물론 학습자가 교육의 중심에 놓인다고 해도 교수자의 역할은 별도로 존재한다. 교수자 중심 교육이 교수자를 중심에 두어 학습자를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게 한다면,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는 학습자를 중심에 두는 반면 교수자는 교수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습자를 중심에 둔다고 하여도, 교수자의 역할을 예외로 한 학습자 중심 교육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그 내용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수업 내용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등(Blumberg, 2012: 47)의 교수자의 역할은 여전히 정립되어 있다.

액션러닝의 측면에서 교수자는 ‘러닝 코치(learning coach)’에 비유된다. 러닝 코치는 학습자가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 관여하진 않되, 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교수자는 구체적인 학습 상황 속에서 학습자(들)과 관계를 맺는, 끊임없이 학습자와의 상호주관적 지식을 형성해 가는 주체다(Nam et al., 2021: 239). 학습자가 ‘일원’으로서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은혜’의 연결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의 주도성이 필수조건이지만, 여기에도 교수자의 설계와 개입은 전제된다. ‘종교와 원불교’의 경우, 교수자가 수업의 전 과정을 안

11) 공자는 제사를 지낼 때 마치 신(神)이 앞에 있는 것처럼 공경스러운 태도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그는 신(神)을 섬기는 과정에서 인간이 학습하게 되는 태도와 덕목을 강조함으로써 종교성 그 자체보다는 종교교육적 의미를 부각하였다(Lee, 2023: 150-151).

12) 유무념 마음공부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하고 이를 마음 챙겨 실행해가는 원불교 공부법으로, 구체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Kim & Han, 2014: 52-53).

내하는 가운데 팀별 활동, 특히 과제 수행 과정은 학습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다. 이 과정이 원활하기 위해 교수자는 안내자와 조력자, 유의미한 학습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Hong et al., 2021: 215).

종교교육에서 조력자이자 촉진자로서의 교수자는 곧 ‘다양한 종교의 핵심 개념이나 문화, 의미 등을 이해하도록 조력 및 촉진하는 교수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 삶의 과제를 통해 종교적 배움을 얻어가는 학습자에게 교수자는 종교적 지식만이 아닌, 일상 삶의 과제를 종교적 지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스승’이다. 즉 교수자는 교수-학습의 전 과정에서 학습자의 문제해결에 연관한 제반 문제, 즉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맥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문제에 새롭게 접근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에 관해 조력 및 촉진하게 된다.

가령 ‘명목집단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은 조력자이자 촉진자로서의 교수자가 학습자와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얻도록 한다. 이 방법은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조용히 노트나 수첩, 카드, 포스트잇 등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부여하는 걸 말한다. 정제된 단어와 문장 사용,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의 장점을 가진다(Bong, 2011: 93-94). 이런 방법을 통해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이 유발할 수 있는 종교에 관한 오해를 방지하거나, 부족한 이해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액션러닝 기반의 종교교육에 관한 설계 방향을 원광대학교 교양과목인 ‘종교와 원불교’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교육의 영역을 막론하고 학습자는 늘 학습의 동기를 부여할 것을 요구받는다. 한 학기 동안 수강해야 하는 다양한 과목마다 학습 동기를 발휘하고, 각 내용과 소통한다는 것은 학습자, 그리고 교수자의 변함없는 과제다. 이런 현실에서 종교교육은 학습자의 동기부여, 교육 내용 및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 교수-학습 방법, 교재 등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된다. 탈종교 현상의 심화 속에서 종교의 의미와 필요에 대한 이해도를 다시금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구성요소를 탈바꿈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종교와 원불교’도 마찬가지여서,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자신의 실질적인 과제를 동료 학습자와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일원’으로서의 주체성과 ‘은혜’의 연결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집단 내에서 공통의 종교적 실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보다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액션러닝 기반 교육과 같은 학습자 중심 교육은 안내자이자 조력자, 촉진자로서 교수자의 역

할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이 점에서 교수자는 ‘지자분위’와 ‘타자녀교육’의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 역량을 갖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수자의 역량이 요구되는 이유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유발할 수 있는 폐단, 즉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습자의 오관, 또는 이해의 부족과 같은 상황을 조율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탈종교시대의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한 시론적 논의이다. 따라서 원불교의 종교교육 이념과 액션러닝 기법의 대화의 가능성, 액션러닝에 기반한 교육의 기초적인 구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에는 주차별 수업 계획 내에서의 액션러닝 기반 교수-학습의 구성, 이론적 지식습득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평가 방안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하겠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원불교 정화사 (1977).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Wonbulgyo Jeonghwasa (1977). *The Scriptures of Won Buddhism*. Iksan: Won-Buddhism Publication.

[Secondary Sources]

- Blumberg, P. *Developing Learner-centered teaching: A Practical Guide for Faculty*. 김경이 외 옮김 (2012). 대학에서의 학습자중심 교육: 실천을 위한 가이드 북. 파주: 양서원.
- Bong, H. C. & Yu, P. J. (2001). Basic Structure and Key Components of Action Learning.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8, 57-82.
- Ham, Y. J. (2016). Understanding of action learning and its possibility as an effective Christian teaching method. *Theology and praxis*, 48, 415-441.
- Harari, Y. N.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전병근 옮김 (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파주: 김영사.
- Hwang, H. K. (2017). A Study on How to Improve Religious Education in Won-Buddhism in the 21st Century. *Religions of Korea*, 41, 157-179.
- Jeong, S. E. (2016). The Life Philosophy of the Great Master Sotaesan.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69, 49-77.
- Jonassen, D. & Land, S. *Theoretical Foundations of Learning Environments*. 김현진 옮김

- (2012). 학습자 중심 학습의 연구 실천을 위한 이론적 토대. 파주: 교육과학사.
- Kim, G. S. (2001). Wonbuddhism and Cultural Studies of the University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2, 201-227.
- Kim, G. S. (2016). A new vision for Religious Education in WonBuddhism: focused on it's reflection and prospect.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0, 71-90.
- Kim, E. J. & Han, N. C. (2014). The Effects of a Mindfulness/Unmindfulness-focused Mind Practice Program on the Holistic Healing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6, 47-66.
- Kim, M. O. & Bong, H. C. (2016). A Study on the Criteria for Selecting Projects in University-Course based on the Action Learning Concept.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9(7), 1175-1192.
- Kim, J. H. (2023). The Meaning of Spirituality in Buddhist Education in an Age of Loss of Religiosi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5, 41-61.
- Ko, S. Y. (2020). Religious Education of Won-Buddhism as a Liberal arts: Focused on the case of Wonkwang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4, 145-170.
- Lee, Y. J. (2023).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aning of 'Shen(神)' in Pre-Qin Period Confucianis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5, 145-162.
- Na, K. S. & Youn, J. K. (2015). Method to invigorate personality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9, 75-101.
- Park, H. J. (2004). *A Study on the "Actual Moral Training" of a Sotaes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 Park, B. R. (2017). Purpose and Subject of Education through the Hwaom thought of the Uisang(義相) Lineage. *The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of Korea*, 62, 27-49.
- Ryu, B. D. (1992). The Hermeneutical research of 'Samdong(三同)' Ethics.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15, 449-484.
- WON-BUDDHISM (n. d.). A collection of constitute in & regulations of WON-BUDDHISM. Retrieved 2024.5.18. from <https://www2.won.or.kr/reverend102/index.jsp>.
- 길희성 (2021). 종교에서 영성으로. 서울: 동연. (Translated in English) Keel, H. S. (2021). *From Religion to Spirituality*. Seoul: Dongyeon.
- 남미자, 김경미, 김지원, 김영미, 박은주, 박진아, 이해정 (2021). 학습자 주도성, 미래교육의 거대한 착각: 교사 없는 학습은 가능한가?. 서울: 학이시습. (Translated in English) Nam, M. J., Kim, K. M., Kim, J. W., Kim, Y. M., Park, E. J., Park, J. A., & Lee, H. J.

- (2021). *Student Agency, Great Illusion of Future Education: Is it Possible that Learning without Teacher?*. Seoul: Lifelonglearningbooks.
- 류병덕 (1977). *원불교와 한국사회*. 서울: 시인사. (Translated in English) Ryu, B. D. (1977) *WonBuddhism and Korea*. Seoul: Siinsa.
- 봉현철 (2011). *성공하려면 액션러닝하라*. 서울: 행성B웨이브. (Translated in English) Bong, H. C. (2011). *Action learning to Succeed*. Seoul: PlanetBWave.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교재연구회 (2023). *종교와 원불교 워크북*.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Translated in English) *Won-Buddhism Studies Textbook Research Association of the Wonkwang University*. (2023). *Work Book of Religion and Won-Buddhism*. Iksan: Wonkwang University Press.
- 이주연 (2023). *은혜철학의 발견*. 서울: 모시는사람들. (Translated in English) Lee, J. Y. (2023). *Discovery of Grace Philosophy*. Seoul: Mosinsaram.
- 홍후조, 조호제, 김자영, 민부자, 배난희, 안희숙, 임유나, 임재일, 최은아 (2021). *최신 교육과정 재구성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스토리. (Translated in English) Hong, H. J., Jo, H. J., Kim, J. Y., Min, B. J., Bae, N. H., Ahn, H. S., Im, Y. N., Im, J. I., & Choi, E. A. (2021).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Latest Curriculum Reconstruction*. Seoul: Pakyoung Story.